

Contents

우리나라에 차나무가 전해진 것은 흥덕왕(興德王) 3년(AD828) 12월 김대렴(金大廉)이 사신으로 당나라에 갔다가 차나무의 종자를 가져다 지리산(地理山- 지금은 地異山)에 심어 번성시켰다는 기록이 있으며, 신라의 화랑(花郎)들에게도 차 생활(茶生活)이 있었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꽃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.

- 01** 고려 때에는 재상(宰相)이나 장군이 서거(逝去)하면 임금은 부의(賻儀)로서 차(茶)를 하사(下賜) 했었다는 기록이 있다
- 02** 이조(李朝)에 와서는 차를 엽전(葉錢)처럼 한 줄에 꿰어두고 몸살이나 감기에 걸리면 달여 마셨다고 한다
- 03** 이렇듯 성행하던 차 생활은 당시 불교의 박해와 함께 쇠잔해 갔으나 제사나 혼례 때 차로서 예(禮)를 행하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다
- 04** 다산(茶山) 정약용(鄭若鏞)은 [차(茶)를 마시는 민족은 흥(興)하고 차를 모르는 민족은 쇠(衰)한다] 고 까지 말했다



ADOBE TEA
CULTURE ASSOCIATION